고양이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은 수탉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⑨ 달콤한 말 : '지혜로운 수탉'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언어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대가 칭찬의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욕을 섞어 말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같은 상황이라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2차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나치는 단순히 '인종청소'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느낌을 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언어에 대해 지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완곡한 언어와 정서적 언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완곡한 언어는 직설적이지 않게 완화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의 부고를 받으면, 죽었다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유명을 달리했다거나 하늘나라로 갔다고 완곡하게 말한다.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직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청소부를 환경미화원, 보험회사 영업 사원을 재정 설계사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모두 완곡한 언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악용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대량 학살을 인종청소라고 표현한 방식이 대표적이다.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 부르지만, 필자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로 조약을 맺은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곡한 언어가 지니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서적 언어도 있다. 예컨대 '수구꼴통' '좌빨' '빨갱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과격해진다.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이들도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대중의 정서를 건드려서 '슈퍼챗'을 유인하는 방식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언어는 이처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도구다.

불교에서도 거짓말[妄語]이나 아부하는 말[綺語] 또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해서 서로 이간시키는 말[兩舌] 등을 경계하곤 한다. 실제로 이런 말에 속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지혜로운 수탉'이다. 고양이가 수탉을 잡아먹기 위해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화다. 원래의 제목은 '쿠쿠타 자타카(Kukkuṭa Jātaka)'로 수탉의 전생 이야기가 된다.

아주 오랜 옛날 바라나시에는 수백의 무리를 거느리는 지혜로운 수탉이 살고 있었다. 당시 멀지 않은 곳에 한 마리 암고양이가 있었는데, 여러 수탉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잡아먹곤 했었다. 오직 지혜로운 수탉만은 예외였다.

어느 날 고양이가 지혜로운 수탉을 잡으려고 했지만, 높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있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유인할지 고민하던 고양이는 나무 아래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수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수탉이여, 어서 내려오세요. 저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와 울음소리에 반해 그대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수탉은 고양이의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달콤한 말로 수탉 유혹한 암고양이
속임수 뒤의 숨은 의도 꿰뚫은 수탉
본질 간파 지혜 강조 부처님 본생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 혜안 필요
신뢰는 입 아닌 삶의 모습으로 증명

"너는 네발 달린 짐승이고 나는 발이 두 개인 새다. 이처럼 새와 짐승의 본성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곳에 가서 남편을 구하라. 너의 달콤한 말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고기를 얻기 위한 덫일 뿐이다."

수탉의 정확한 지적에 고양이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지혜로운 수탉이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었다.

말이 아니라 평소 행위를 보라

고양이와 수탉 이야기는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애욕에 사로잡혀 출가 생활을 포기하려는 제자를 위해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전생담이다.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과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파멸에 이를 수 있으니,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동화다. 이뿐만 아니라 화려한 외모와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전에서는 이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애욕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리딩방 사건' 등이 떠올랐다. 로맨스 스캠이란 SNS, 메신저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호감을 쌓은 후 돈을 요구하거나 가상 자산 등에 투자를 권하는 연애 빙자 사기 범죄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동화 속 고양이처럼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동화의 주인공인 수탉처럼 상대의 의도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화 속 고양이와 같은 달콤한 언어는 앞서 말한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기도 한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한다. 현실적이고 신뢰가 가는 공약(公約)과 달콤하지만 빈 껍데기뿐인 공약(空約)을 구별할 줄 아는 유권자의 성숙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그래서인지 옛 성현들은 한결같이 세련되게 옷을 입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공자 역시 〈논어(論語)〉에서 이렇게 말한다.

"말을 교묘하게 잘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치고 어진 이가 드물다(巧言令色 鮮矣仁)."

여기에서 공자는 교언영색(巧言令色), 즉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참으로 공감되는 구절이지만, 말과 표정, 스타일을 중시하는 요즘에는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이야기다.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외적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추세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법구경〉 '화향품(華香品)'에 나온 부처님 말씀이다.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한마디로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으려면 역시 지혜가 갖춰져야 한다. 언젠가 한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평소에 자주 나오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보다 어쩌다 한 번 얼굴 보이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애정을 가지고 자주 참여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은 단체에 도움이 되지만, 어쩌다 한 번 나와서 돈도 잘 쓰고 말도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은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때론 그 사람 말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법구경〉 말씀처럼 빛깔만 곱고 향기는 전혀 없는 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달콤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화 속 수탉은 다른 무리와 달리 고양이의 말이 아니라 평소 행위, 그러니까 닭을 유인해서 잡아먹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리고 수탉과 고양이의 본성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에게 접근한 목적이 사랑이 아니라 고기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맨스 스캠의 유혹에 속지 않은 수탉의 지혜가 돋보이는 동화라 할 것이다.

오래전 작고하신 아버님이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다. 비교적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이었지만, 이것만은 따르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서 사는 일이 너무 슬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간과하지 말기로 하자. 신뢰는 입이 아니라 평소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